

광양시, 전국 도농복합시 중 '삶의 질' 종합지수 2위

경제, 문화·공동체, 지역활력 영역 평가 우수... 농어업위 129개 대상 2년 연속 인구증가, 복지체계 촘촘 "그간의 노력과 성과 평가 된 것"

광양시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도농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삶의 질'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도농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경제(7위), 문화·공동체(3위), 지역활력(6위) 영역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경기도 이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충남 청양에서 제21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 129개(농어촌 79, 도농복합시 50)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5개 영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과 20개 지

표로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광양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스마트 항만 조성, 철강산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신산업의 메카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광양은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어린이보육재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소아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광양시는 '도시 수준이 보장되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24년 일반예산의 10.59%를 농업·농촌 분야에 투자해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귀농귀촌 지원,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감동과 행복을 위한 광양시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들이 이번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따뜻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옥룡면, 어르신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광양시 옥룡면은 지난 5일 옥룡면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남도안전학당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폭염대비 안전교육 △생활안전(화재예방, 보행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참여도를 높인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창출을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룡면은 근린생활시설 17명, 내동네가꾸미 13명으로 구성된 참여자 30명이 참여해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

옥룡면 관계자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옥룡면 만들기에 늘 애써주시는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안전교육을 잘 수료하셔서 올 한 해도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국제 자매·우호도시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필리핀 등 6개국 8개 도시 대상

광양시는 2019년 부여된 국제 자매·우호도시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이 만료(5년)됨에 따라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9년 7월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연장된 명예도로명은 광양시와 국제교류가 활발한 6개국 8개 도시로 오스트리아 린츠로, 중국의 선전로·샤먼로·푸저우로, 필리핀의 까가안데오로로(사진), 베트남의 광남로, 러시아의 아스트라한로, 인도네시아의 찰레곤길이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업유치, 국



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도로명으로,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명예도로명 부여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며 "6개국 8개 도시와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시민들이 국제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10월11일 개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읍사무소에서 추진위원회를 열고 축제 시기 선정과 축제 추진 방향 등을 심의한 결과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기간을 오는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10월 중 '광양 K-POP 페스티벌',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되어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공모' 우수제안에 대해 축제 적용 방법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축제 대행업체 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8월10일까지 축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참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초 축제 관련 안전, 교통, 환경, 위생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승배 축제위원장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광양시 대표축제이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축제"라며 "올해 축제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새로 더하고, 앞선 축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광양불고기를 주축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광양시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해마다 약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옥곡면 의용소방대 회원과 공무원들이 지난 5일 신금마을 내 방치된 폐컨테이너를 정리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옥곡면, 의용소방대와 함께 환경정화 봉사활동

광양시 옥곡면은 지난 5일 옥곡면 의용소방대 회원 25여 명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신금마을 내 방치된 폐컨테이너를 정리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방치된 폐컨테이너가 농로 옆에 위치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폐컨테이너 내에 방치된 생활용품 등

으로 여름철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폐컨테이너 내에 방치된 폐가구,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약 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마을 주민들은 "방치된 폐컨테이너 내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옥곡면 의용소방대원들과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광우 의용소방대장은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구슬땀을 흘려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로 지역민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치근 옥곡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면민이 함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옥곡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산업평화 실현' 광양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성료

광양시는 지난 5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년차 산업평화실현 광양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의장 김성희)가 주최하고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와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800여 명의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체육행사,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항업 국회의원, 최대원 시의회 의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정성경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이광용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 회장, 김중희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회 회장, 황호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각계에서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선정된 모범근로자 총 25명에게 도지사, 시장, 광



양시 광양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광양시 제공

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훈격이 주어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노사민정 대표가 함께 서명한 '광양시 노사민정 산업평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노사민정 공동 산업평화 실현을 통한 상호 동반자 관계 정립과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8개 기업으로부터 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또 광양인식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원대상지로 선정돼 2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